

## 연구동향으로 본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인식 - 해방 후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김명배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동향

1. 기독교 사회운동의 배경과 논리에 연구
2.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관한 연구
3. 통일운동에 관한 연구

### III. 연구자들의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인식

1. 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사회적, 신학적 배경과 논리에 대한 인식
2.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대한 인식
3.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6.03>

---

• ABSTRACT •

---

Recognition of the Korean Christian Social Movement from the  
Research Trends

Associate Prof. Kim, Myoung-Bae (Soongsil University)

It is 136 years when Korean Christianity was planted. Korean Christianity was developed with the national protection movement before Japanese annexation, and it deployed the sovereignty recovery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the liberation, it was devoted to democratization and the human rights movement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Since the 1980s, the unification movement has been carried out by it until now. This paper analyzes the researches on democratization, human rights movement and unification movement after liberation in Korean church history.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research history of democratization, the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unification movement. Also, it examines what kind of perception the social movement of Korean Christianity developed.

**Key words:** Research Trends, Democratization, Reunification, City Awareness, Korean Christianity

---

## I. 들어가는 말

한국기독교는 1885년 4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내한한 이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기독교가 구한말 우리민족에게 전래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아픔과 고난의 역사에 함께 참여한 기독교민족운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한말에는 열강의 침략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고 상실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는 신생교회였지만 국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종의 탄신일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걸고 애국가 를 지어 불러 황제를 비롯한 조선 왕실의 신뢰를 받았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기독교인들은 의병투쟁을 비롯한 무장투쟁에 가담하기도 하고, 미주와 중국 상해, 그리고 연해주 등 해외에 망명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도 하였다. 특히 1919년 3.1 운동 때에는 전국의 교회들이 독립운동의 거점과 연락망으로써의 역할을 하여 민족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해방 후에도 박정희 군사정권이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저항하는 재야인사들을 탄압하자, 한국기독교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 시기 한국기독교는 사회참여운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선도하여 민주화운동을 견인해 냈고, 기독교계 인사들은 유신체제를 종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80년대 한국기독교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인권탄압과 폭압에 맞서 활발한 인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기층 민중운동과 연대하여 1987년 6.10항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기독교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운동을 시작

하여 한국사회에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진보 기독교인들은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와 같은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각종 통일선언문을 발표하고, 통일회년을 선포하여,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 통일담론을 제기하였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에 나서도록 견인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기독교는 선교 후 136년의 역사동안 한국의 근현대사에 일어났던 국권수호운동, 국권회복운동, 민주화와 인권운동, 통일운동 등 민족운동과 함께 하였고, 이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한국 ‘기독교 사회참여운동’과 관련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에 「기독교사상」과 「신학사상」이 기독교의 민족주의나 민족의식에 대한 논문이 간헐적으로 게재되었으나, 교회사 연구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혹은 ‘기독교 사회운동’<sup>2)</sup>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과 학위논문은 상당히 축적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논문 가운데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sup>3)</sup> 특히 연구동향을 통하여

- 1) 한국기독교는 해방 후 진보진영의 반독재·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의 일부 보수진영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에 협조하여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들을 외면하기도 하였고, 교회성장주의에 매몰되어 교세확장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극소수의 교인들이기는 하지만 극우 보수세력에 가담하여 한국사회의 분열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기독교의 부정적 측면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 2)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해방이전의 한국기독교의 사회참여운동은 “기독교 민족운동”으로, 해방이후의 한국기독교의 사회참여운동은 ‘기독교 사회운동’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민족운동과 기독교 사회운동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특히, 기독교 사회운동은 포괄적으로는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행한 기독교의 모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운동을 일컫는 개념으로 이해하며, 여기에서는 해방 후 한국기독교가 행한 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 3) 일제 강점기의 한국기독교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한규무의 “한국기독교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2호(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가 있고, 해방 이후의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한 문헌으로는 조배원의

본 한국기독교의 사회인식에 대한 논문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문은 해방 후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자들이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으로 우선 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관한 연구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의 사회참여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신학대학교의 석,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들을 발표된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둘째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학술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지금도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논문의 목록을 서지학적으로 모든 논문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에 목적에 두기보다 연구자의 사회운동에 관한 인식이 드러난 대표적인 논문들을 필자가 취사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로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가운데 노동, 도시빈민, 여성, 청년, 농민운동 등 각 부문운동에 대한 연구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상의 논문을 모두 포함하면 지면관계상 또 다른 분량의 논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 연구논문들이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동향

### 1. 기독교 사회운동의 배경과 논리에 연구

#### 1) 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연구자들은 우선 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를

---

“기독교사회참여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기독교 사회참여운동 관련 문헌해제』(서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3)가 있다.

시도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사회적 배경으로 1960, 70년대 경제개발로 인한 노동소외와 유신독재체제의 등장을 들고 있다. 1960년대 말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빈부격차로 노동자와 도시빈민층의 사회경제적 소외가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 말이 되자, 한국사회는 계층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경제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는 1969년 3선 개헌과 1971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1972년 유신체제의 등장을 경험하면서 극심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 내 진보세력들은 전태일 분신사건 이후 학생운동과 재야운동권 등 민중세력과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즉, 기독교 내 진보세력은 경제독재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제약, 도시빈민층의 양산, 그리고 전체주의적 일인독재체제인 유신시대의 등장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으로는 김일주의 “한국의 민중적 기독교세력 등장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와 문유경의 “197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발생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가 있다. 김일주는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시기에 국가권력의 집중화와 사회 계층적 분화, 기독교 내부의 변화관계를 통하여 기독교세력의 정치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sup>4)</sup> 또한 문유경은 기독교계의 민주화 운동의 시작 시기로 1972년 이후 유신체제의 등장을 주목하고, 1979년 10월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기독교의 사회 변혁적 기능을 고찰하였다. 즉, 기독교 민주화운동이 대두되게 된 배경을 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였다.<sup>5)</sup>

4) 김일주, “한국의 민중적 기독교세력 등장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고려대학교박사학위 논문, 1991) 이하 학위논문의 인용페이지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정리한 것임으로 페이지를 생략한다.

## 2) 기독교 사회운동의 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 기독교사회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내적 근거, 즉 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이다. 대수의 연구자들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토착화 신학’, ‘세속화신학’, 그리고 ‘민중신학’을 들고 있다. 우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관련하여 1991년 서영섭은 “70년대 이후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에 관한 고찰”에서 1952년 독일 빌링겐 국제선교대회(IMC)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소개하고,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한국 기독교로 하여금 사회적 현실의 ‘해방’을 추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이형기도 빌링겐 IMC가 제시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WCC의 역대 총회를 통해 교회의 사회참여의 신학적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또한, 연구자들은 1960년대 한국 신학계에 일어난 ‘토착화 신학’과 ‘세속화 신학’이 한국교회 사회운동의 신학적 배경이었음을 주장한다. 1961년 한신대 전경연 교수와 감신대 유동식 교수 사이에서 시작된 토착화 논쟁은 1965년 윤성범 교수가 ‘사상계’에 발표한 단군신화 토착화론으로까지 진행되었다. 이 토착화 논쟁에 대해 김용복은 1991년 6월호 ‘기독교사상’의 “민중신학과 토착화신학”이라는 글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 민족의 역사와 사회에 적용되어 민중들의 삶과 함께 했다고 주장하며 민중신학의 토착화 방안을 모색하였다.<sup>8)</sup> 연구홍도 한국 신학계는 한국전통문화와 종교를 논의하면서 한국의 현실 문제를 기독교 신학의 과제로 삼기

5) 문유경, “197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 발생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6) 서영섭, “70년대 이후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에 관한 고찰”(감리교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91).

7) 이형기, 『21세기를 행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 576.

8) 김용복, “민중신학과 토착화 신학.” 『기독교사상』(1991.6), 29-37.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또한, 이들은 ‘세속화 신학’도 기독교 사회운동에 그 조력을 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홍은 세속화 신학은 비기독교인들과 사회적 연대성을 고양시켰으며, 산업화에 의해 야기된 경제적 소외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진보진영의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sup>10)</sup>

또한 연구자들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신학적 배경의 하나로 ‘민중신학’을 들고 있다. 이들은 1970년대 한국 신학계에 고난 받는 민중의 현실과 그 현실의 극복을 위한 투쟁 속에 ‘민중신학’이 수립되었고, 이후 ‘민중신학’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고 보았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를 통해 체제를 반대하는 목회자와 교수, 그리고 학생들을 구속시켰다.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서남동은 1975년 「기독교 사상」에 3편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민중신학”을 태동시켰다.<sup>11)</sup> 안병무도 1975년 3월 1일 민주인사 출옥 기념식에서 “민족, 민중, 교회”라는 강연을 하여 민중해방에 대한 신학적 기틀을 놓았다.<sup>12)</sup> 따라서 송건호는 ‘민중신학’은 1970년대 초 전태일 분신 사건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가난한자,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을 깨닫게 하였고, 민중생존권 투쟁을 위한 사회참여로 나아가게 했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그리고 유동식과 이원규 같은 학자들은 ‘민중신학’이 맑시즘과의 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sup>14)</sup>

9) 연구홍, “197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교회사적 근거”, 한국신학연구소 편저,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151-173.

10) 위의 논문.

11) 이형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577. 세 편의 논문은 『예수, 교회사, 한국교회』(2월호), 『민중의 신학』(4월호), 『성경의 제 3시대』(10월호) 등이었다.

12) 송기득, “민중신학의 정체,” 『1980년대 한국 민중신학의 전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3) 송건호, “기독교의 사회참여-70년대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1984, 11).

나아가 연구자들은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이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았다. 김경재는 기독교 사회참여 신학의 거두인 김재준의 정치신학은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과 나아가 칼뱅의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한 20세기 칼 바르트의 신학에 정초하고 있다고 보았다.<sup>15)</sup> 이덕주와 김명룡도 김재준이 자신의 신학이 신정통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김명배도 한국사회 민주화과정에서 기독교장로회의 역사참여는 김재준의 정치신학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에 의해 계승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김재준의 신학은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기초한 정치신학이었다고 한다.<sup>17)</sup>

기독교의 신학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이다. 초대교회 이래로 현재까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있어왔고, 한국기독교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원규는 “한국개신교회의 정치참여(1970년대 기독교진보주의 종교이념의 발전과 그 수용문제를 중심으로)”에서 1960년대 말부터 한국의 교회와 정부가 대립, 긴장관계에 놓였다고 평가하고 그 관계의 실상을 밝혀 그 이념적, 현실적 근거를 보고자 하였다.<sup>18)</sup> 이호대는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연구

14)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서울: 전망사, 1986); 이원규, “한국개신교회의 정치참여-1970년대 기독교진보주의 종교이념의 발전과 그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5) 김경재, “장공 김재준의 정치신학: 신학적 원리와 사회-정치적 변혁론,” 한국신학연구소 편저, 『한국개신교사 한국 근현대사회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6), 277-296.

16) 이덕주, “김재준 목사의 편지,” 『세계의 신학』(2003, 가을호), 148.

17) 김명배, “칼뱅의 정치윤리가 한국개신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서울: 선학사, 2010.12), 149.

18) 이원규, “한국개신교회의 정치참여(1970년대 기독교진보주의 종교이념의 발전과 그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그는 교회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에서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나타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일종의 ‘창조적 긴장 관계’로 보았다.<sup>19)</sup>

김명배는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참여의 과정에서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한국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 개신교회를 보수진영, 복음주의 진영, 진보진영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보수진영은 루터의 두 왕 국론, 진보진영은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과 에큐메니컬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은 로잔선언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이 신학적 배경이라고 주장하였다.<sup>20)</sup>

### 3)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의 한국사회 현실인식과 지향도에 관한 연구

연구자들 가운데는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이 한국사회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했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은 1970,80년대 한국사회를 민주적 절차나 제도가 결여된 독재사회로 인식했고,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파악하였다. 즉, 서구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체제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

국가의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국가와 기독교 교회가 동일시되거나 기독교가 국교로서 통치자의 필요에 응하는 관계, 2) 분리와 공존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 3) 소외와 탄압의 관계로서 국가가 기독교를 소외 탄압하는 관계이다. 이원규는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 2)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해방 후에는 1)의 관계로 돌아가 친정부적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교회가 현실비판자로서 사회개혁에 앞장서게 되었다고 보았다.

19) 이호대,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연구,”(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0) 김명배,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참여의 과정에서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영숙은 1991년 3월부터 5월까지 「기독교사상」에 연재한 글, “한국 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변동 추진에 대한 연구: 1957-1984년을 중심으로”에서 기독교의 진보적 지도자들은 한국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간 ‘실질적 민주주의’를 주창하였고, 이것은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1)</sup> 원성훈은 기독교 진보세력이 유신체제기간에 추구하였던 정치체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구가되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와 유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 2.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관한 연구

### 1) 기독교계 민주화운동의 시작 시기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는 기독교가 언제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체로 기독교계의 연구자들은 1970년대 기독교가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는 계기로 1971년 전태일 분신자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유신헌법공포를 들고 있다. 즉, 전태일의 분신사건으로 기독교계는 민중들의 열악한 삶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일인 권위주의 독재체제인 유신체제의 시작은 기독교 진보세력이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상근은 1984년 11월 「기독교사상」에 기고한 글에서 유신개헌 반대 투쟁에 기독교계가 참여한 활동을 다루면서 이때부터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1973년 부활절연합

21) 이영숙, “한국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변동 추진에 대한 연구-1957-1984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1991. 3월-5월), 125-145.

22) 원성훈, “한국기독교 진보세력의 현실참여운동에 관한 연구-유신체제시기 반체제운동을 중심으로,”(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4).

예배 당시 박형규 등 수도권도시산업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회복을 위한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23)</sup> 김병서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당시 심각했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는 1970년 11월의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은 한국교회가 다시 민중 ‘해방적 전통’을 인식하고 적극 역사사회참여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이다.<sup>24)</sup>

한편, 기독교의 민주화운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연구문헌들은 한국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의 시기와 계기를 좀 더 이른 시기로 잡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들은 1960년대 초의 4.19혁명, 중반의 한일협정비준반대운동, 그리고 후반의 3선개헌반대운동 등을 기독교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조승혁은 1960년 4.19의거의 발생은 기독교계가 그동안 정치권력과의 밀착관계를 반성하게 하였고, 이후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원성훈도 기독교계가 이미 유신체제 이전에 정치적 현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즉, 그는 기독교계가 1960년대 말부터 정치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과 저항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결정적으로 유신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불려왔다는 것이다.<sup>26)</sup>

## 2) 기독교계 민주화운동의 주체의 문제에 관한 연구

기독교 사회운동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구주체의 하나는 민주화 운동의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은

23) 김상근, “1970년대의 한국 기독교운동.” 『기독교사상』(1984. 11).

24) 김병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기독교,” 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2000), 23.

25) 조승혁, “민주화와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편, 『한국사회발전과 민주화운동』(서울: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1986).

26) 원성훈, “한국기독교 진보세력의 현실참여운동에 관한 연구-유신체제시기 반체제운동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4).

기독교계 내의 진보적 '지식인 그룹'과 '젊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청년학생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독교인 교수와 신학자들로 이루어진 '지식인 그룹'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직접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젊은 목회자와 기독교청년학생 그룹'은 민주화 운동을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대다수 연구자들은 민주화운동은 기독교계 내 진보적 '지식인 그룹', 즉 '유기적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동의하고 있다<sup>27)</sup>

변형윤은 『한국사회 발전과 민주화운동』에서 '중간층이론'을 소개하였다. 그는 사회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계층'이 사회적인 의식에 아직 눈뜨지 못한 민중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발전을 보다 다양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28)</sup> 이영숙은 '중간집단론'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경제성장주의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진보적 지식인들'을 사회적 영역 내에서 상이한 이해관계와 관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자' 혹은 '중간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sup>29)</sup> 최길호도 1960년대 초반에 지성인들의 사회참여가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운동론으로 '중간집단론'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30)</sup>

### 3)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2000년대 들어와 새로운 연구들에 의하면, 1980년대 기독교계의 사회

27) 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2년, 4월호), 66-77.

28) 변형윤 외, 『한국사회 발전과 민주화운동』(서울: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1986). 그는 인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기독교가 주도한 각종운동을 그 예로 들고 있다.

29) 이영숙, "한국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변동 추진에 대한 연구-1957-1984년을 중심으로," 125-145.

30) 최길호, "한국현대사의 사회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제 양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운동은 1970년대보다 운동의 폭은 더 넓어졌고, 참여자도 훨씬 많아졌다.

김홍수는 “5월 광주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연구”에서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를 신앙고백과 신학적 해석의 차원에서 살펴 보았다. 그는 이 사건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신학의 상황화’라는 형식으로 되새겨 왔다고 분석하였다. 즉, 광주민주화운동은 기독교인에게 현실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화’의 길로 가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기독교인들의 현실참여가 보다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이다.<sup>31)</sup>

김주한은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에서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된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항쟁의 전개과정, 항쟁을 주도한 주체세력 및 항쟁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항쟁의 주요한 주체세력으로서 기독교 진영(개신교)의 참여와 활동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독교 세력들의 가치관과 신념체계가 한국사회변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1970년대 개신교 민주화운동이 진보적인 소수 목회자와 신학자, 기독교청년학생, 그리고 소수의 교회들에 의해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80년대에는 그 참여하는 교회와 교단, 그리고 지도자들이 훨씬 많아져, 기독교계 사회운동의 참여는 점점 더 성숙해졌다고 한다.<sup>32)</sup>

김명배는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에서 1980년대 기독교계의

31) 김홍수, “5월 광주항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응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5 (1995), 155-183. 여기서 ‘신학의 상황화’란 주어진 역사적 현재에서 성서적 신앙을 새롭게 듣고, 이 현재적 상황이 실천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성서적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해명하려는 이론적 작업을 뜻한다.

32) 김주한,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개신교가 한국근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189-216.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시작되었고, 제 5공화국 군부 독재체제 하에서 기독교는 인권수호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의 전선이 반외세 자주화로 외연이 넓어졌으며, 1987년 6월 항쟁 시에는 거의 모든 교단들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기독교계가 점점 더 성숙해져갔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 4)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

김진배는 1987년 『1970년대 민주화운동: 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3권의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에 대중성을 획득했으며, 기독교 인권운동은 그 과정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독교계가 인권운동에 나선 것은 1970년대 초반 ‘전태일 분신사건’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생존권 투쟁이었으며,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은 인권운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독재정권에 의한 각종 탄압에 대한 인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sup>34)</sup> 조승혁은 “민주화와 한국교회의 역할,”에서 한국교회의 인권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 교단별, 지역별로 확산되었고,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 고문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특히 이 시기에 인권운동은 재야 학생운동권과 연계하여 광범위한 펼쳐졌다고 지적하였다.<sup>35)</sup>

한편, 2000년에 들어와 문장식은 염광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민주화

33)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서울: 북코리아, 2009)

34) 김진배, 『1970년대 민주화운동: 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I, II, III(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35) 조승혁, “민주화와 한국교회의 역할,” 국기독교산업개발원 편, 『한국사회발전과 민주화운동』(서울: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1986)

운동과 인권운동』이라는 단행본(2001)을 발행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일제 말부터 박정희 군사정권 말기까지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싸웠던 염광희의 회원들과 운동을 다루고 있다. 문장식은 1970년대 빈민선교운동, 노동운동의 태동이 염광희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그 기반이 형성되었음을 주장한다.<sup>36)</sup> 또한 김형민은 “유신체제하에서 인권의식 형성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수주 박형규 목사를 중심으로”에서 1970년대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의 발전에 한국 개신교회가 끼쳤던 사회윤리적 영향력을 수주 박형규 목사의 삶과 설교를 통해 조명하였다. 이 글에서 김형민은 1970년대 한국교회의 인권운동은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의 정치경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경험에서 촉발되었다고 하면서, 수주 박형규 목사의 인권운동과 민주화 운동은 억눌린 자들의 아픈에 동참하고 참 해방을 얻기 위한 순례의 길이었다고 정의하였다.<sup>37)</sup>

인권운동에 관한 비교적 가장 최근의 논문은 손승호의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이다. 이 책은 유신체제하에서 진행된 진보적 기독교 세력의 저항운동인 인권운동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는 NCCK의 저항적 인권운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국내외의 인권담론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NCCK가 인권운동을 주로 담당할 인권위원회를 설립할 시기의 국내외 사회적 상황과 내적변화의 과정을 살피고, 유신체제기 NCCK의 인권운동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폈다. 이 논문은 기독교 사회운동 가운데 특히 인권운동에 집중하면서 비교적 상세히 기독교계의 인권담론과 인권활동을 다루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sup>38)</sup>

36) 문장식, 『한국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염광희를 중심으로』(서울: 쿤란출판사, 2001)

37) 김형민, “유신체제하에서 인권의식 형성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수주 박형규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개신교가 한국근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175-187.

38)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 3. 통일운동에 관한 연구

#### 1) 기독교계의 통일운동의 참여 계기와 시기에 관한 연구

연구자들은 기독교가 통일운동을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문익환은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기독교 진보진영에서 ‘선통일 후민주’나 ‘선민주 후통일’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논쟁의 결과 “민주화의 성취는 곧 통일이며 통일의 성취 없이 민주화도 이룰 수 없다”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sup>39)</sup> 이삼열도 1980년 3월 기독교장로회가 ‘통일은 교회의 선교 과제’임을 천명하고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예라고 주장하였다.<sup>40)</sup> 박성준은 “1980년대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에 관한 고찰”에서, 조순은 “1980-199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과 그 이론적 기반 및 쟁점들”에서 각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기독교 진보진영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즉, 현재의 분단 구조에서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군사독재를 주장하는 세력을 근절시킬 수 없고, 군사정권 배후에 미국의 묵시적 지원이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전향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이다.<sup>41)</sup>

한편, 교회 내의 흐름에 더 주목하는 연구들은 1980년대 세계교회협의회, 해외기독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의 선언서와 활동을 통일운동의 본격적 시작으로 본다. 김상우는 1981년 ‘조국통일을 위한 복과 해와

39) 문익환, “7.4 공동성명 이후의 민족문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서울: 민중사, 1990). 즉, “통일은 민주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민주화는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이 둘을 끊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0)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서울: 햇빛출판사, 1991).

41) 박성준, “1980년대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에 관한 고찰”,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회년운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조순, “1980-199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과 그 이론적 기반 및 쟁점들”,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17-251.

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모임에서 발표한 '비엔나 선언'을 본격적인 통일논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sup>42)</sup> 나이영은 1982년 NCCK의 제31차 총회에서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신설된 것을 중시하고 이를 계기로 화해와 공존으로서의 민족적 자주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한다.<sup>43)</sup> 노정선은 통일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1984년 "동북아시아 정의와 평화협의회"가 도잔소에서 열리면서부터였다고 한다. 도잔소 선언은 처음으로 남북분단을 '갈등구조 하에 있는 국가 간의 문제로 지적하고, 양자 사이의 교류와 화해가 '선교사업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천명함으로써 통일운동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sup>44)</sup>

그러나 일부의 연구자들은 개신교 통일운동의 시작을 1970년대까지 소급하기도 한다. 김용복은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은 한국기독교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는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한국기독교계는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sup>45)</sup> 손규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데,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문익환이 처음으로 '남북통일의 신학'의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남북통일신학의 근거로 통일은 '평화'를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sup>46)</sup>

42) 김상우, "한국개신교에 있어서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과 변화,"(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43) 나이영, "분단시대 민족적 선교과제로서의 한국교회 통일운동,"(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44)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8)

45) 김용복, "민족분단 속의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46) 손규태, "평화를 위한 통일의 신학", 『기독교사상』(1990.1).

## 2) 개신교 통일운동의 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다수의 연구자들은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신학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을 들고 있다. 김홍수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박형규, 강원룡, 박상중, 문익환 등 기독교계 인사들은 ‘통일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영향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이형기도 1990년 ‘JPIC 서울 대회’는 “분단현실로 인한 ‘평화’ 문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정의’ 문제와 ‘환경’ 문제를 등을 다루어 한반도가 ‘JPIC’의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안고 있는 축소판 세계”임을 알렸으며,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일환으로 ‘95년 통일희년’을 선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48)</sup>

또한 연구자들은 통일운동의 신학의 하나로 성서의 ‘희년신학’을 들고 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희년’의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 결합과 상처의 구조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해’이며, 하나님이 백성의 공동체가 통일된 온전성을 회복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안병무와 이경숙은 ‘불의한 사회구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법적권리와 생존권을 회복시켜주는 특별한 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sup>49)</sup> 따라서 김용복은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이 ‘희년’의 제도를 민족사적 전망과 세계사적 전망에서 통일신학의 주제로 선택하였고, 1988년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의 선언〉은 그 신학적 기반이 성서의 ‘희년사상’

47)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48) 이형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세계대회 자료집』(서울: 민중사, 1990).

49) 안병무, “성서의 희년사상, 그 가능성과 한계”, 채수일,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이경숙, ‘기쁨과 은총의 해, 희년의 성서적 의미’, 채수일,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이었고, 이것이 1995년 민족의 화해를 선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50)</sup>

한편,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신학적 배경의 또 하나로 WCC의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 신학을 들고 있다. WCC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지역분쟁과 전쟁, 대량살상, 그리고 핵개발과 군비경쟁과 같은 구조적 폭력을 목도하면서, 전통적인 ‘정의로운 전쟁’ 개념 대신에 ‘정의로운 평화’라는 개념을 정립해갔다. 정성한은 이 ‘정의로운 평화’ 개념은 1980년대 한국교회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WCC가 주선한 1884년 일본 도잔소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협의회’는 한국교회 진보진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한국교회 진보진영은 평화문제를 복음의 핵심적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1)</sup> 최근 이형기도 “WCC가 말하는 평화”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정의로운 평화’개념이 서울 JPIC대회 이후 킹스턴과 부산 WCC 총회에서 본격화되었다면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평화’ 개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sup>52)</sup>

최근에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기독교 보수진영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일오는 한국교회의 보수진영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안보 정책’안에서 북한에 대한 선교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하였다.<sup>53)</sup> 정성한은 한국기독교 보수진영의 통일운동은 1989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인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한국사회와 교회는 급박하게 ‘임박한 통일’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50) 김용복, “민족분단 속의 기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51) 정성한,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서울: 그리스, 2003).

52) 이형기, “WCC가 말하는 정의로운 평화,” 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편, 『하나님 나라와 평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55.

53) 정일오, “북한의 교회와 선교방향,” 『기독교사상』(1980,6) 한국 기독교 보수진영은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국가로 종교에 대해 말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라는 것이다.

한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보수교회들도 이전의 ‘북한선교론’에 기초한 통일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특히 보수교회의 대표적 단체인 ‘한기총’은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본부>를 설치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을 많이 만들어 ‘북한선교’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이시기에도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통일운동의 목표를 북한교회의 재건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의 보수진영의 통일운동은 북한의 핵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인권단체들을 만들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sup>54)</sup> 김명배도 한국교회 보수진영이 NCCK의 ‘88선언’의 발표에 대항하기 위해 통일논의와 운동에 전향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에 대한 직접적 선교는 통일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이른바 ‘북한선교론’을 주장하였다고 보았다.<sup>55)</sup>

이 밖에도 최근의 통일운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정종훈은 “독일교회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의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라는 글을 통해 독일교회의 경험이 한국교회의 규범이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sup>56)</sup> 이유나는 “문익환의 통일운동과 통일인식”을 민중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sup>57)</sup> 이동춘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평적으로 검토하고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sup>58)</sup> 안교성은 “통일신학의

54) 정성환,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사』(서울 그리스, 2003).

55) 김명배, “한국교회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7집(서울; 북코리아, 2013), 159-195.

56) 정종훈, “독일교회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의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64집(2010), 257-285.

57) 이유나, “문익환의 통일운동과 통일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2012, 가을호), 65-82.

58) 이동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평”,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6집(2013), 7-54.

소고”를 통해 한국기독교계의 통일신학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그 역사적 맥락, 시기별 특징, 다양한 통일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sup>59)</sup>

### 3) 각종 통일선언문에 대한 연구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 또 다른 주제는 각종 통일선언문에 대한 연구이다. 대다수 연구자들은 통일운동에 관한 각종 선언문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내용을 소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980년대 전반기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선언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도산소 보고서’이다. 채수일이 편찬한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은 한국교회의 정세분석과 협의 끝에 나온 ‘도산소’보고서는 교회의 통일운동에 이정표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한다. 도산소 협의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1) 분단은 한반도 악의 근원이며 독재와 인권유린,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다. 2)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교류와 나만이 있어야 한다. 3)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교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교회들이 여건을 조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저자는 이 ‘도산소 보고서’를 통일운동의 시초로 보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sup>60)</sup>

그리고 1980년대 전반기에 발표된 ‘도산소 결의문’과 함께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주요한 문서로 평가되는 ‘88선언’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논문과 저서에서 소개되고 있다. 1988년 2월 29일 NCKK 제37회 총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88선언’의 핵심은 한국교회의 통일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세 가지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한 통일의 3대원칙인 자주, 평화,

59) 안교성, “통일신학의 발전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90집(2012), 87-113.

60) 채수일,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민족대단결을 수용한 것이고, 여기에 인도주의적 원칙과 통일논의에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참여를 원칙을 추가하였다.<sup>61)</sup> 김상근은 이 '88선언'을 통일논의를 민중차원으로 끌어들이 활성화했으며, '평화와 통일'이라는 남북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와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기념비적 사업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62)</sup> 노정선도 '88선언'은 통일 논의를 국민적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이후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으로 선포함으로써 실질적인 화해와 교류를 이끌어내는 데 공헌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63)</sup>

한편, 정성환은 NCKK가 1985년 제34차 총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평화통일선언〉을 주목한다. 이 선언문은 “한국교회가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의무와 권리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그는 이 선언문에 대하여 “평화란 민주적이면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평화운동을 추진시키고 뿌리 깊게 박힌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한국교회가 꼭 실천해야 할 과제로 '반공교육' 대신 '평화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sup>64)</sup>

61) 박성준, “1980년대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에 대한 고찰”, 451-476. 또한 이 '88선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로 남북교회간의 교류방문, 민족교회공동체형성, 1995년을 평화통일 회년으로 선포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62) 김상근,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의 평가와 제언,” 한국기독교장로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 운동 자료집』(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2000).

63)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8).

64) 정성환,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서울: 그리심, 2003), 323-324.

### III. 연구자들의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인식

#### 1. 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사회적, 신학적 배경과 논리에 대한 인식

1970년대 한국기독교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하여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널리 알렸다. 1980년대 기독교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앞장서 기층 민중운동과 함께 1987년 6.10항쟁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한국기독교계 사회운동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과 그 논리에 대하여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자들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사회적 배경으로 1960,70년대 경제개발로 인한 노동소외와 유신독재체제를 들고 있다. 즉, 1960년대 말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빈부격차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정치적으로는 1972년 유신독재체제의 등장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서는 전태일 분신사건 이후 기독교계 내 진보세력은 학생운동권과 재야운동권과 함께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비판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연구자들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내적 근거, 즉 신학적 배경으로 에큐메니컬 사회참여신학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1960년대 논쟁이 된 ‘토착화 신학’과 ‘세속화 신학’ 그리고 1970년대 태동한 ‘민중신학’을 지목하는데 일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칼뱅 전통의 ‘그리스도 주권론’과 장로교의 문화변혁적 역사참여 신학이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구자들은 정치적으로 유신독재체제의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운 경험에서 나타난 한국적 상황신학인 ‘민중신학’은 한국 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의 중요한 논

리적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연구자들은 기독교 사회운동 주도세력은 한국사회를 민주적 절차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독재체제의 사회로 보고, 국민의 참정권과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운동세력은 결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대한 인식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기독교는 1970년대 전체주의적 유신독재체제와 1980년대 군부독재시대에 정치적 자유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가 극도로 제한되자, ‘반독재·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사실로 인해 ‘민주화와 인권운동’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핵심적 연구주제이다. 연구자들은 기독교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첫째로, 기독교계의 반독재·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대체로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는데 연구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1971년의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은 기독교계로 하여금 열악한 민중의 현실을 깨닫게 하였었고, 1972년 일인 독재체제의 유신헌법의 공포는 기독교계가 본격적으로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나서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기독교계의 민주화 운동의 시작을 1960년 중반 한일협정반대운동과 후반의 3선개헌반대운동까지 소급하여 제3공화국 말기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4.19학생의 거가 기독교의 정치권력과의 밀착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때부터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연구자들은 1970년대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이끈 핵심적 주체로 기독교 내의 '진보적 기독교 지식인 그룹'과 '젊은 목회자와 기독교 청년학생 그룹'이라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적 기독교 지식인 그룹'은 197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견인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젊은 목회자와 기독교 청년학생 그룹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대중적 투쟁으로 선도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NCKK'를 중심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KSCF', 'EYC' 등의 조직을 통해 기독교계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로, 연구자들은 1970년대 기독교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이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신앙고백적 차원의 운동이었다면, 1980년대 기독교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은 다수의 개인과 교회, 그리고 각 교단들이 참여하는 범교회적 사회운동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에 전두환 군사정권에 저항하여 6.10항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복음주의 진영은 물론 보수적 교단까지도 참여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넷째로, 연구자들은 1980년대 기독교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은 1982년 고신대 학생인 문부식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계기로 '반외세 자주화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인식한다. 이 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불신을 상기시켜 한국사회 내 반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1970년대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이 1980년대에 들어와 '반외세 자주화와 통일운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다섯째, 일부의 연구자들은 한국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은 인권운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확산되었다고 본다. 특히 이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에 처음으로 대중성을 확보하였고, 기독교 사회운동

과정에서 인권운동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즉, 한국기독교계의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의 각종 탄압에 맞선 인권운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권 밖의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첫째로, 이들은 무엇보다도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은 대중적 운동이 아닌 소수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한국 기독교계가 6.10항쟁 등 민주화 운동에 범교단적으로 참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와 한국기독교회는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의 교회들도 대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둘째로 한국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은 기본적으로 체제유지세력으로 존재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기독교계의 사회참여운동은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의 형성과 발전에 일정정도 기여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의 변혁적 성격을 제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의 사회운동을 민중운동권적 시각으로 평가절하한 것으로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한국기독교의 소수 엘리트 기독교 지도자들은 엄혹한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견인해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각종 인권수호운동에 앞장섰고, 기층민중운동과 연대하여 1987년 6.10항쟁을 성공시켰다.

셋째로, 기독교권 밖의 인식 가운데 하나는 보수 기독교계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한국기독교 보수진영은 군부독재에 협력하는 친정부적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이들에 의하면, 한국기독교 보수진영은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도 1960년대 중반부터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하여 군부독재 세력에게 정치적 정당

성을 부여하여 주었고, 1980년대에는 다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민주화운동에 헌신할 때 이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 3.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

1980년대 들어와 기독교 내 진보세력은 한국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즉, “민주화의 성취는 통일의 성취 없이는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은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함께 ‘통일운동’을 전개하였고, 점차 ‘통일운동’을 우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기독교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자들은 한국기독교의 통일운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선통일 후민주냐, ‘선민주 후통일’이라는 통일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그 시작점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이 ‘민주화와 인권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본다. 즉, 군사정권의 배후에 미국의 묵인이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진보 기독교계는 현재의 분단구조하에서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집권하고 있는 군부세력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연구자들은 교회내의 흐름에 주목하여 1981년과 1982년의 WCC와 NCCK, 그리고 해외기독자들이 주최한 대회모임과 여기에서 발표된 선언문들을 통일운동이 본격화된 것으로 인식한다. 특히 이들은 1981년 ‘비엔나 선언’, 1982년 ‘통일문제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설립을 통일운동의 시발점으로 본다.

둘째로, 연구자들은 한국기독교의 통일운동의 신학적 배경으로 ‘하나

님의 선교' 신학과 성서의 '희년사상' 그리고 최근에는 WCC차원에서 발전한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 개념을 들고 있다. 연구자들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뿐만아니라 '통일운동'의 신학적 기반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기독교가 '희년사상'을 민족사적 관점과 세계사적 전망에서 통일신학의 주제로 선택하였고, 1995년 통일희년 선포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에는 한반도 핵위기가 고조되면서 WCC의 '정의로운 평화' 개념이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신학적 근거로 부상하였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연구자들은 기독교의 통일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각종 선언문에 주목하여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한 연구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전반기에 발표된 '도잔소 보고서'와 '후반기에 발표된 '88 선언'에 주목하여, '도잔소 보고서'가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의 이정표를 제공한 것이라면, '88 선언'은 한국기독교의 통일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인식한다. 특히 이들은 '88 선언'이 통일운동을 국민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이후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

넷째로, 연구자들은 '북한교회 재건론'에 기초한 한국기독교 보수진영의 통일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기독교 보수진영은 1989년 동서독이 통일되고, 1990년 동구권이 붕괴되는 사건을 목도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진보진영의 '88 선언'을 비판하면서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기총을 중심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등 민간단체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보수교회의 이러한 '북한선교' 운동은 여전히 '북한교회 재건론'에 머물러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고 인식한다.

다섯째로,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통일운동이 소수의 교회와 기독교 기관 그리고 교회 대표자들의 토론에 머물렀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기독교의 대다수 교회들과 교인들은 통일문제와 통일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기독교의 통일논의는 급격히 위기를 맞이하였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가 통일정책을 주도하고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기독교가 통일논의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 이해된다.

####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과 연구자들의 사회인식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앞으로의 몇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한국기독교계가 먼저 해야 할 연구과제는 1980년대 이후 기독교 사회운동의 참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규명이다. 지금까지 연구동향을 보면 1980년대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는 70년대와 비교하여 그 연구의 양과 질이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다. 이는 사료의 수집이 70년대보다 부족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사료의 수집과 발굴이 우선 요청되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서술이 요청된다.

둘째,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의 한국사회의 전체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다. 1970년대는 한국기독교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특히 반독재민주화 운동에 선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은 기층 민중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그 영향력과 주도 세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기층민중 운동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이 시기에 일반사회 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운동에 참여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급격히 후퇴 또는 소멸해 간 현실에 대해서는 분석이 거의 없다.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특히 그것의 전체 민주화운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층 민주운동의 성장과 시민운동의 등장 이후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기독교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자료발굴과 연구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기독교사회운동의 역사와 신학적 배경 등에 집중해 왔다.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참여한 개개 인사들에 대한 연구라 할지라도 소수의 명망가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사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활동상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 여긴다.

넷째,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전통에 있어서 한국기독교와 연대하거나 도움을 주었던 북미주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엄혹한 군부독재시기에 해외의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한국기독교 진보진영의 버팀목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 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경재, “장공 김재준의 정치신학: 신학적 원리와 사회— 정치적 변혁론.” 한국신학 연구소, 『한국개신교사 한국 근현대사회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6. 277-296.
- 김명배,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참여의 과정에서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 서울: 북코리아, 2009.
- \_\_\_\_\_. “갈뎡의 정치윤리가 한국개신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 20집, 서울: 선학사, 2010.12. 131-162.
- \_\_\_\_\_. “민주화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2년 4월호, 66-77.
- \_\_\_\_\_. “한국교회통일운동의 역사와 그 신학,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서울; 선학사, 2013, 159-195.
- \_\_\_\_\_. “한국교회 사회참여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서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7. 49-77.
-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김병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기독교,”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2000.
- 김상근, “1970년대의 한국 기독교운동.” 『기독교사상』, (1984. 11), 31-41.
- \_\_\_\_\_.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의 평가와 제언,”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교회 평화통일 운동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2000.
- 김상우, “한국개신교에 있어서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과 변화.”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인수, 『한국기독교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김일주, “한국의 민중적 기독교세력 등장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용복, “민족분단 속의 기독교.”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 \_\_\_\_\_. “민중신학과 토착화 신학.” 『기독교사상』(1991.6), 29-37.
- 김진배, 『1970년대 민주화운동: 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I, II, III, 서울: 한

- 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 김주한. “6월 항쟁과 기독교.” 한국신학연구소. 『한국개신교가 한국근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189-216.
-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 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420-450.
- \_\_\_\_\_. “5월 광주항쟁에 대한 기독교인의 종교적 반응.” 한국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155-183.
- 김형민. “유신체제하에서 인권의식 형성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수주 박형규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신학연구소. 『한국개신교가 한국근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175-182.
- 나이영. “분단시대 민족적 선교과제로서의 한국교회 통일운동.”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노경선. 『통일신학을 향하여』,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8.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기독교 사회참여운동 관련 문헌해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 문익환. “7.4 공동성명 이후의 민족문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서울: 민중사, 1990.
- 문은배. “한국교회 남북통일운동의 흐름.”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문유경. “197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발생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문장식. 『한국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 영광회를 중심으로』, 서울: 쿤란출판사, 2001.
- 박성준. “1980년대 한국기독교 통일운동에 대한 고찰.”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451-476
-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서울 : 돌베개, 1992.
- 변형운 외. 『한국사회 발전과 민주화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1986.
- 서영섭. “70년대 이후 진보적 기독교 사회운동에 관한 고찰.” 감리교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91.
- 손규태. “평화를 위한 통일의 신학”, 『기독교사상』(1990.1)
-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 송건호. “기독교의 사회참여-70년대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1984, 11), 40-53.

- 송기득. “민중신학의 정체,” 『1980년대 한국 민중신학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안교성. “통일신학의 발전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90집(2012). 87-113.
- 안병무. “성서의 회년사상, 그 가능성과 한계”, 채수일, 『회년신학과 통일회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이경숙. ‘기쁨과’은총’의 해, 회년의 성서적 의미,“ 채수일, 『회년신학과 통일회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이원규. “한국개신교회의 정치참여-1970년대 기독교진보주의 종교이념의 발전과 그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이덕주. “김재준 목사의 편지.” 『세계의 신학』. (2003, 가을호), 144-170.
- 이동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평.”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 26집(2013). 7-54.
-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서울: 햇빛출판사, 1991.
- 이영숙. “한국 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변동 추진에 대한 연구-1957-1984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1991. 3월-5월), 125-145.
- 이유나. “문익환의 통일운동과 통일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2012, 가을호). 65-82.
- 이형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_\_\_\_\_. “WCC가 말하는 정의로운 평화.” 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편. 『하나님 나라와 평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13-63.
- 이호대.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교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연규홍. “197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교회사적 근거.” 한국신학연구소.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151-173.
-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전망사, 1986.
- 원성훈. “한국기독교 진보세력의 현실참여운동에 관한 연구-유신체제시기 반체제운동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정성한.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서울: 그리심 2003.

- 정일오. “북한의 교회와 선교방향”, 『기독교사상』(1980,6).
- 정종훈. “독일교회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의 남북통일을 위한 과제.”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64집(2010). 252-285.
- 조배원. “기독교사회참여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 사회참여운동 관련 문헌해제』, 서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3.
- 조 순. “1980-199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과 그 이론적 기반 및 쟁점들.”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17-251.
- 조승희. “민주화와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편. 『한국사회발전과 민주화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1986.
- 최길호. “한국현대사의 사회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제 양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최형묵. “사회변혁운동 이념과 기독교신학-1980년대 한국 상황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채수일.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서울: 민중사, 1990.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세계대회 자료집』, 서울: 민중사, 1990.
- \_\_\_\_\_. 『기사연리포트 7- 민중의 진출과 민족민주주의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8.
- 한규무. “한국기독교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12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75-113.

논문투고일: 2020년 02월 29일

심사개시일: 2020년 0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18일

---

• 국 문 초 록 •

---

한국기독교는 올해로 136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기독교는 해방이전에는 구한말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70년대부터는 군부독재정권이 들어서자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민족운동 가운데 해방 후 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여 한국기독교가 사회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진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에 관한 연구사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논문들을 통하여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연구동향, 민주화, 통일, 사회인식, 한국기독교

---